

# 익산시, 공공시설 운영 재개

### 실내체육시설 13곳 · 복지시설 · 시립도서관 등 개방 전담요원 배치 · 인원 50%까지 제한 등 방역관리 철저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운영을 소대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해 배산실내체육관과 익산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 등 13곳의 실내체육시설이 개방됐다. 수영장 샤워실까지 모두 개방됐으며 밀집도가 높은 탁구장은 단식경기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

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도 함께 운영이 재개됐다.

주민지원센터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시립도서관은 13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자료열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은 개방하며 DVD 및 간행물 등은 착석하여 열람이 불가하며 자유열람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하여 좌석을 50%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시청각

실은 대실이 불가능하다.

앞서 게이트볼장과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공원 체육시설, 야구장 등 6곳의 실외 체육시설은 지난달 25일부터, 왕도역사관과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교토소세트장 등 문화·관광시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시는 개방 후에도 모든 공공시설에 전담요원 배치와 시설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원을 최대 50%까지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의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아 환자안전 지킴이 사진전을 열고 있다.

## 원광대병원 '환자안전 지킴이' 사진전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들이 증가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고취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자안전에 대해 노력한 직원들의 모

습을 담아 환자안전 지킴이 사진전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 배포와 환자안전 활동 교육을 실시했고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환자안전 활동이 담긴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총력

### 거점 · 통제초소 추가 설치 방역취약지역 드론 소독 등

익산시가 최근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거점 및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만경강 철새도래지 드론 소독,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등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발령된 ASF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에 울타리 점검과 방역수칙 SMS 발송 및 소규모 농가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익산시의 경우 소와 돼지 등의 가축 1,202호(24만7,000두)와 닭, 오리 등 가금류 147호(94만2,000수) 등 타 지역보다 사육 두수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방역취약 지역인 소규모농가 455호, 축산밀집지역 가금개체당인 18명, 산닭 판매소 12개소 등이 있어 농가

관련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북단에 위치하고 하남 등 대형 도축장이 있어 사육차량, 생축 운반차량의 이동이 많으며 돼지 밀집사육지역인 왕궁지역과 만경강 철새도래지가 소재하고 있어 ASF, 구제역,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첫 발

군산시가 지난달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시는 13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킷오프 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산 해역 내 풍황 자원 조사 위치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올해 안에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 확정과 어촌계 등 지역 내 해상풍력 관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해상

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원을 들여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해수유통 · 환경문제 쟁점

### 군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3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 38건의 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서동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송미숙·배형원·김영일·김중신·우종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은 198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군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는 동네문화가 폐사됨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1,800억과 중

1,313개 강좌의 운영이 중단 되었다며, 장기화 될 코로나19 상황과 변화되는 교육 상황에 고려하여 임시방편적인 지원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원은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론을 내렸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신 의원은 전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 위기 지역일 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대안과 많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도 나 선거구(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지역은 군산국가산단단지 195개의 공장과 군산제2국가산단단지에 535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3개의 화력발전소, 폐자원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오랫동안 공해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자동차부품산업 세미나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제6회 자동차대체부품산업 세미나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원장 임종인)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품질(대체인증부품) 공강 및 제품 인증심사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이상현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와 군산시 지원으로, '군산형 대체부품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군산고용위기센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글로벌자동차 대체부품협회를 비롯해 지역 내 자동차부품기업 20여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익산시, 하천 피해 복구

익산시가 관내 하천(331km)의 수해로 인한 수확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수확기를 대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3일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가올 때 하천 주변 농가들이 농기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천 수해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발 빠른 현장확인 및 응급조치를 통해 현장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만경강과 금강 상류인 대전천과 전주천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 퇴적 등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정비반(48명)과 응급복구반(4개 업체) 등으로 구성된 피해지역 현지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응급복구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비 53억8,800만원을 편성해 내년 영농기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